

새로운 조경수 62

사철나무



김사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사철나무의 결실 전경

종류와 생육특성

사철나무류는 노박덩굴과(Celastraceae) 화살나무속(Euonymus)에 속하며, 그 종류는 사철나무와 줄사철나무의 두종류가 있고 사철나무의 변종으로 무룬나무, 넓은잎사철나무, 긴잎사철나무, 은테사철나무, 은사철나무, 금테사철나무, 금사철나무가 있으며, 줄사철나무에도 위와 같은 변종이 있다. 사철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이남의 해안지역에 자생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 만주에도 분포하고 있으며 줄사철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전남북, 경남북)에 자생하고 있고 일본, 중국 중부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사철나무와 줄사철나무는 내염력, 내음력, 내공해력, 내건력, 내한력이 강하여 우리나라 중부내륙지역에서도 월동이 가능하고 입지조건에 관계없이 어떠한 입지에서도 잘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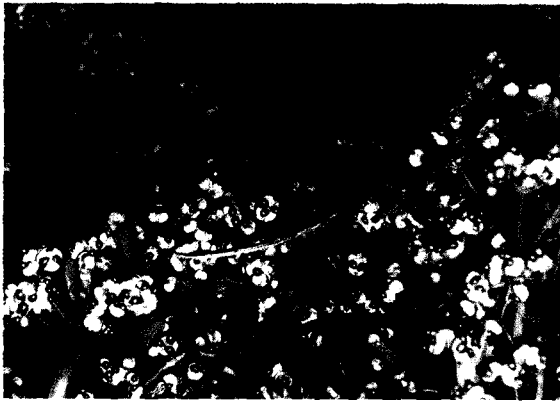
〈표 1〉 사철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THUNB.	마사키	Evergreen Euonymus
무룬나무	<i>Euonymus japonica</i> Var. <i>macrophylla</i> REGEL.	오호바마스키	
긴잎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Var. <i>longifolia</i> NAKAI.	나가바마스키	
은테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for. <i>albo-marginata</i> (T.MOORE) REHDER.	긴소프치마스키	
은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for. <i>albo-variegata</i> REGEL.	긴마스키	
금테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for. <i>aureo-marginata</i> REHDER.	킨프치마스키	
금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for. <i>aureo-variegata</i> REGEL.	킨마스키	
넓은잎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var. <i>latifolius</i> ANDRE.	히로바마스키	
줄사철나무	<i>Euonymus fortunei</i> var. <i>radicans</i> (SIEB. et MIQ) REHDER.	쯔르마스키	Creeping Euonymus

〈표 2〉 생태 특성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습지
사철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록활엽수관목으로 수고 3m정도 자람 어린가지는 녹색이며 평활함 앞은 대생(對生)하고 혁질(革質)이며, 뒷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엷은 녹색임 앞은 장타원형, 예두 또는 둔두, 엽저는 빼기모양임 앞의 길이는 3~7cm, 넓이는 3~4cm임 앞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6~7월에 연한 노백색으로 피고, 꽃의 지름은 7mm정도임 화서는 취산화서(聚繖花序)로 액생(腋生)함 꽃은 양성화(兩性花)이며 꽃받침, 꽃잎, 수술은 4개씩임 열매는 삭과로 둥글고, 지름이 7~9mm로 10월에 노란색으로 익음 익은 열매는 3~4개로 갈라지고, 종자는 붉은 종의(種衣)에 사여 겨울내내 나무에 붙어 있음 1/당 종자입수 14,000개, kg당은 24,000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해변 일본, 중국·만주에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조건에 관계 없이 어떤 곳에서도 잘 자람
무룬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이 사철나무에 비하여 넓고 큰(길이 5~7.5cm) 광타원형(廣橢圓形)임 가지와 앞의 기타 특징은 사철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과 열매는 사철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북, 전남북, 충북, 강원도 일본 	<p>”</p>
긴앞사철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이 사철나무보다 좁고 길 앞의 길이는 6~9cm, 넓이는 2~3.5cm임 가지와 앞의 기타 특징은 사철나무와 같음 	<p>”</p>	<p>”</p>	<p>”</p>
은테사철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가장자리가 은분칠을 한 것 같이 흰테를 두르고 있음 	<p>”</p>	<p>”</p>	<p>”</p>
은사철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에 흰반점 또는 무늬가 있거나 앞의 대부분 또는 전면이 흰색임 	<p>”</p>	<p>”</p>	<p>”</p>
금테사철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가장자리가 금분을 칠한 것 같이 노란테를 두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과 열매는 사철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북, 전남북, 충북, 강원도, 일본 	<p>”</p>
금사철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의 표면에 노란반점 또는 무늬가 있거나, 앞의 대부분 또는 전면이 노란색임 	<p>”</p>	<p>”</p>	<p>”</p>
넓은앞 사철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이 원형 또는 도난형으로 사철나무보다 앞이 넓음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북, 경북, 충남, 경기 	<p>”</p>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줄사철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록활엽수 덩굴식물로 길이 10m이상 자람 잎은 대생하고 타원형 또는 난형이고, 예두, 첨두임 잎의 길이 2~5cm, 넓이 1~2cm임 잎의 윗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녹색이며, 잎가장 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음 줄기에서 기근이 나와 다른 나무와 바위에 붙어 자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5~6월에 연한 녹색으로 피 꽃은 양성화로 지름은 6~7mm임 화서는 추상화서로 액생하며, 한 개의 화서에 15개 정도의 꽃이 달림 열매는 4각상의 편구형(扁球形)임 열매는 10월에 노란색으로 익고 4개로 갈라지며, 종자는 붉은 종의에 싸여 겨울내내 붙어 있음 1㎡당 종자입수는 22,000개, 1kg당 33,000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에 분포 일본, 중국 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조건에 관계 없이 어떤 곳에서도 잘 자람



▲ 사철나무의 열매



▲ 덩굴게 다듬어진 사철나무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두텁고 진한 녹색의 윤(潤)이 나는 사철나무의 잎은 항상 신선한 푸른 환경을 제공해 주고 전지(剪枝), 전정(剪定)으로 수형을 원하는 모양으로 마음대로 다듬을 수 있어 오래전부터 생울타리, 정원수 등 조경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리고 6~7월에 꽃의 지름이 7mm 정도밖에 아니되는 담황색의 작은 꽃이 피어 나무 전체를 덮고 있는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은은한 향기와 더불어 환경의 변화를 제공하여 준다. 또

한 가을에는 노랗게 익은 열매가 갈라져 밖으로 내민 주황색의 종자가 겨울내내 떨어지지 않고 나무전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아름다운 경관은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를 더 한층 높여준다. 그리고 사철나무는 내공해력, 내한력, 내음력, 내염력, 내건력 등이 강하여 어떠한 입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도심의 가로에 조성해 놓은 쥐똥나무 생울타리 등의 대체수종으로 가장 적합한 수종이며, 이때 금테사철, 은테사철, 금사철 등을 구간구간 혼식(混植)을 하면 더욱 아름다운 생울타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철나무 생울타리의 개화



▲ 은사철나무



▲ 넓은잎사철나무의 잎과 열매



▲ 금사철나무



▲ 무른나무(앞)

번식 및 양묘방법

사철나무의 번식은 주로 파종과 삽목에 의하며, 파종에 의한 실생양묘는 10~11월에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물에 3~5일정도 담구어 두었다 주물러서 과피(果皮)와 종피(種皮)를 분리시켜 물로 씻어 제거한 후 건져서 바

로 습한 모래와 잘 섞어서 저온저장 또는 노천매장을 하여 보관한다.

이듬해 봄에 m^2 당 50cc 또는 30g(약 700개)정도의 종자를 산파하고 그 위에 건조방지를 위하여 벗짚같은 것을 얇게 깔아준다. 파종 후 약 1개월이면 발아하고 평균발아율 70%, m^2 당 발아기대본수 500본, 득묘본수 300본, 평균묘고 8cm정도이다. 상체는 이듬해 봄에 m^2 당 30~40본을 한다. 출사철나무의 실생양묘시 종자채취, 종자정선, 종자저장, 파종방법등은 사철나무와 같고, m^2 당 파종량 15cc 또는 10g(320개), 평균발아율 60%, 발아기대본수 200본, 득묘본수 100본, 평균묘장 30cm, m^2 당 상체본수 20~25본 등의 차이가 있다.

삼목양묘에 있어서 삼목의 시기는 4~10월까지 가능하지만 삼목 최적기는 4월이며, 노지삼목을 하여도 활착이 잘 되지만 반드시 해가림을 하여 주어야 한다. 삼수의 채취는 삼목 실시전에 채취하여 10~15cm 길이로 절단하여 아래쪽 절단부를 잘 드는 칼로 단칼에 비스듬히 절단하고 삼수의 1/3정도는 잎을 남겨 두어야 하며, 삼목의 깊이는 7~10cm, m^2 당 삼목본수는 200~300본, 발근율 80~100%이고 득묘본수는 m^2 당 90본 정도가 된다. 상체는 이듬해 봄에 사철나무는 m^2 당 30~40본, 출사철나무는 20~25본 정도로 한다. **조경수**

